東亞日報

今日四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朝鮮의 小作問題

一

朝鮮內의 土地의 兼倂은 年年激甚하여가는 傾向을 보인다 昔日에는 三南에 限하야 十指를 다 屈하기에 不足할만한 萬石君을 볼 수 [illegible] 倂合以來로 東拓會社를 爲始하야 日本의 大資本家가 朝鮮의 土地經營에 着手함으로부터 大兼倂의 端이 열리고 또 [illegible] 廣告機關의 擴張과 [illegible] 朝鮮人의 消費力이 生産力에 比하야 [illegible] 增加함을 따라 中流[illegible]以下의 生活難가 [illegible] 直接間接稅의 高騰과 其他 [illegible] 用途로 [illegible] 個人及家庭의 [illegible] 膨脹하게 되어 마츰내 [illegible] 負債로 唯一한 生産[illegible]인 土地를 抵當 또는 賣却하지 아니치 못하게 됨으로 土地의 兼倂은 더욱 甚하게 되엇다 生産의 增加가 따르지 못하는 消費의 增加(이것을 뜻기 조케 말하면 生活의 向上이라고 한다)로 農業을 主業으로 하는 民族이 破産의 [illegible]에 陷한 例는 産業文明의 [illegible] 異民族이 [illegible] 接觸하게 되는 곳에는 거의 普遍的 現象이다 [illegible] 南洋이나 馬[illegible]에 [illegible] 現象이 만타 하며 昔日의 [illegible]에도 그러한 實例가 잇다

二

一朝鮮의 鐵道와 電信電話와 道路와 其他의 文明의 利器는 現在朝鮮人의 生産力에 比하야는 過度의 發達을 하엿다 이것은 朝鮮人의 生活의 必要上 必然的으로 生長한 것이 아니오 日本人生活의 必要上 朝鮮人에게 負擔식힌 것이라고 볼 理由가 잇다 그러케 아모리 文明의 利器라 하여도 生活의 必要以上 것이면 다만 [illegible] 富力과 勞働力의 浪費일 뿐이어니와 [illegible] 利器가 生産에 利用이 되지 못하고 消費에 利用이 되어 生活의 根柢를 破壞하는 [illegible] 其他部面의 分外의 華麗와 奢侈 [illegible]의 分外의 高[illegible]과 [illegible] 朝鮮人의 土地를 [illegible] 重大한 原因이 되는 것이다

三

土地兼倂의 弊가 尤甚한 三南地方에 이미 보는 바와 가치 將次黃海平安道 咸鏡道의 次序로 土地는 兼倂될 것이다 前例로 보건대 水利組合이 생기는 곳에는 반다시 兼倂이 行한다 그것은 小作料의 現在의 組合費와 負擔의 增額되는 곳이라 大資本家가 將來의 利를 豫期하고 時價以上으로 土地를 吸收하는 까닭이다 朝鮮總督府의 所謂 産米增殖計劃으로 全土에 水利組合은 漸漸 普及될 것이오 그리하는 대로 土地兼倂은 漸漸 盛行하야 小農인 自作農은 一時의 千圓의 資金을 貪하야 永遠한 小作人이 되고 말 것이니 産米는 增殖되나 그를 따라 小作人이 增加되는 것도 不可避의 일이다 그를 따라 不久에 朝鮮에는 自作農이 全滅하고 大地主와 小作人의 二大階級으로 날카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小作人은 朝鮮人이오 大地主는 日本人일 것도 免할 수 업는 일이다

四

昔日의 地主對小作人關係는 一種의 主從의 關係이어서 人權의 見地로 보면 不平等이 엇거니와 奴隷時代모양으로 勤勉만 하는 동안은 小作人은 淪落할 念慮는 업섯다 換言하면 人權上으로는 奴隷的이엇슬는지 모르거니와 地主에게 生活의 保障은 바든 셈이엇다 그러나 今日은 地主對小作人關係는 일흠은 조케 對等의 貸借契約이지마는 오직 物權、債權의 拘束만을 밧는 法律的關係임으로 昔日에 밧던 主從的恩情關係조차 일허버려 內年이 틀너가 地主의 權利가 [illegible]에는 곳 衣食의 道를 일키는 道理가 된다 이 點으로 보아 今日의 法律은 地主에게 더 주고 小作人에게서는 前에 가지엇던 保障까지도 쌔앗는 셈이 된다

이리하야 朝鮮의 小作問題는 다른 곳의 것과 달라 一種의 民族問題를 包含한 特種의 進路를 取할 것을 指摘하고 만다

江蘇安徽江西三省 奉軍에 一任!
浙江福建을保持可能이면 孫氏의奉軍援助를受한內幕

中部中國五省聯盟의 盟主로서 一時 氣勢를 擧하든 孫傳芳氏도 連續하는 敗戰으로 軍士도 分裂하야 全혀 收拾키 困難한 悲運에 陷하기 때문에 何等通知도 업시 僅히 五名의 從者를 隨하야 入津한 後 張作霖氏의 꾹에 뛰여드러 赤化의 可恐할 意를 說明하며 自己는 浙江福建을 保持할 수만 잇스면 江蘇、安徽、江西의 各省은 奉軍의 自由에 委任하야 將來奉天軍의 命에 從하겟다고 哀願하엿슴으로 張作霖氏도 廣東軍의 戰備가 아즉 未成하고 國民軍과의 連絡이 充分히 되지 못한 此際 徹底的으로 討伐하려고 決心한 것이라더라(天津二十日發)

天津에 戒嚴令

揚子江의 形勢가 急變하기 때문에 天津에는 戒嚴令이 公布되엿다더라(天津廿日發)

段祺瑞는 臨時元帥
軍事는張孫兩氏가責任負 ◇三巨頭會見結果

天津에서 張作霖、孫傳芳、張宗昌三巨頭는 會議한 結果 奉天派大部隊의 援軍은 約一週間內에 南下하기로 되엿다 其中央政局은 根本的으로 改造하기로 되야 其第一步로 段祺瑞氏를 臨時元帥로 하야 三個日以內에 國民代表會議를 召集하고 正式으로 大總統을 選擧하야 軍事一切는 張孫兩者가 其責任을 負하야 北洋派의 團結을 圖하기로 決하엿더라(北京二十日發)

張氏의 中央出馬
正式手段을經한後

張作霖氏를 大元帥又는 大總統에 推戴하려는 運動者가 잇슴에 對하야 張氏側近者의 有力者는 說(?)此際各方面의 一致贊成이 잇다하여도 出馬할 理가 업고 [illegible]連中萬若 張氏가 中央에 出馬한다 하여도 正式手段을 經한 後가 아니면 안된다고 語하더라(北京二十日發)

討赤聯盟組織
張氏를首領에推戴

最近吳佩孚、閻錫山氏等은 連名으로써 張作霖氏에 對하야 現今 赤化가 國本을 危殆케 하려는 際憂國同志는 聯盟을 組織하야 討赤의 決意를 天下에 宣言하고 張作霖氏를 聯盟의 首領에 推戴하겟다고 通電하엿는데 氏는 此에 對하야 贊意를 表하고 目下 宣言文을 起草中이더라

張孫間協定內容
◇……五個條로成立

孫傳芳氏와 張作霖張宗昌兩氏間에 締結된 協定內容은 左와 如하더라(天津廿日發)

一、張宗昌은 直隷山東軍十五萬을 率하고 江西省에 進出하야 南軍의 主力에 當할
二、孫傳芳은 江蘇浙江의 保持並福建의 南軍에 當할
三、張學良은 第三四兩方面軍團으로 京漢線의 治安維持에 當할
四、渤海艦隊東北艦隊도 出動하야 軍隊輸送과 戰鬪에 參加할
五、張作霖은 北方軍隊統帥의 位置에 就할

山東軍은 第一線
孫軍은二線을防禦

孫傳芳氏가 疾風迅雷的으로 達津北上하야 張作霖、張宗昌兩氏와 親히 會見하고 援助를 求한 事는 兩者의 感情을 現著히 融和하야 停滯되엿든 援兵問題는 即時圓滿解決되야 張宗昌氏는 直隷山東軍十五萬을 率하고 可及的速히 第一線에 出動하야 廣東軍과 直面하려하며 孫軍은 第二線을 守하기로 決定하엿다더라(天津二十日發)

孫氏數日滯津

孫傳芳氏는 十一日夜秘密히 大津에 入하야 張作霖、張宗昌兩氏와 會見하고 出兵問題에 關하야 協議中인바 二三日滯在後에 南京으로 歸한다더라(天津十九日發)

日中條約 交涉延引?
中側意見强硬

芳澤顧維鈞兩氏間에 行하여잇는 日中通商條約改訂에 關한 非公式交涉은 順調로 進行되던바 顧維鈞氏其他의 外交家를 委員으로 하는 條約調査會의 同答文에 對한 報告가 六個月內에 改訂이 안되는 境遇는 舊條約에 對한 自由의 權利를 保留한다는 中國政府最初의 主張을 固守하겟다는 意見이 잇고 且言論界의 雄將인 梁啓超氏가 十九日의 晨報紙上에서 日本은 改訂에 制限을 加하야 [illegible]을 除外하고 六個月內에 新條約不成立의 境遇는 舊條約의 有效를 主張할 것이다 我等의 要求는 國家로서 生存上 最低限度의 것임으로 어데까지던지 貫徹하여야 된다 萬一 不成功의 境遇에는 革命的手段을 取할 外에 道理가 업다 滿期到來의 條約에 對하야는 다 廢棄를 實行할 것이다라는 强硬한 意見을 發表한 外닭에 中國側의 意見은 再次强硬하게 되는 中이다 此에 對하야 日本公使館側에서는 中國側右의 主張을 撤回치 아니하면 交涉開始는 延引하게 되리라더라(北京十九日發)

英炭坑罷業 前途又復暗澹
政府案多大數反對로 炭坑夫代表會議도無策?

炭坑罷業解決에 關하야 政府가 最後案으로서 炭坑夫聯合會側에 提示한 地方의 協定締結에 依한 一般就業並全國賃銀審判局設立에 依한 地方的協定의 엇던 程度의 統一을 含하는 和解案은 過般來全國各地方에서 各別로 票決에 附하엿든바 十九日畢竟그 結果를 公式으로 發表하엿다 即此에 依하면 全國을 通하야 政府案贊成坑夫數는 三十一萬三千人反對數는 四十六萬一千人이라는 大多數로 坑夫는 政府의 調停案에 反對하는 것이 判明한 터이다 그리하야 二十日 倫敦에서 開催할 全國炭坑夫代表者會議도 何等의 計策을 施할 수 업슬듯하야 炭坑罷業의 前途는 再次暗澹한 形勢로 되엿다더라(倫敦十九日發)

坑夫代表會議通告

炭坑夫代表會議는 十九日 地方坑夫團體에 對하야 爭議를 解決키 爲하야 最善의 條件을 協定하려고 各地의 坑夫와 交涉을 開始하기를 公認한다고 通告하엿다더라(倫敦十九日發)

復業坑夫漸增

罷業炭坑夫의 復業하는 者가 漸增하야 十九日은 一萬二百四十四名의 新就業者를 見한바 今日까지의 就業炭坑夫總數는 合計二十七萬六千百七十四名에 達하엿다더라(倫敦十九日發)

쿡氏露西亞行

炭坑夫聯合會總評議會는 露西亞勞働組合會議의 招待에 應하야 十二月 炭坑夫聯合會幹事『쿡』氏를 露西亞에 派遣하기로 決定하엿다더라(倫敦電)

暴動은 虛傳
뿌스끕縣事件

去十八日『레닌그라드』縣의 南方『뿌스끕』에 反過激派暴動이 勃發하야 暴徒五百名은 逮捕되고 그中十九名은 銃殺한 後 他의 全部는 莫斯科로 護送하엿다는 報道가 傳하엿스나 二十日半官的으로 發表한 바에 依하면 右暴動은 全然虛報라더라(莫斯科廿日發)

建設方面에對한 國民黨의政策(二)
黨聯合會議에서決定

上海에서 趙德津

四、省、縣、市政府에關한問題

國民政府統治下에 잇는 省及縣市等行政機關에 關하야

一、省府는 七人乃至十一人의 委員制로서 組織하되 廳을 分設하고 廳長은 兼하기도 하며 兼치 안키도 할것인데 그 組織方法은 中央執行委員會에서 指定한 數人과 省黨部에서 選擧한 者로서 組織할것
二、縣、市의 政府委員도 亦是委員制를 採用하되 省政府에서 任命한 委員으로서 組織하고 또 委員長一人으로 指定하야 必要한 各局을 設立할것
三、省議會及縣、市民議會、鄕民議會는 職業選擧法으로서 選擧할것이고

省政府及國民政府에 關係로는

一、一省의 일은 省政府에서
二、兩省以上에 關係되는 것은 國民政府에서
三、外交에 關한 것은 國民政府에서
四、國民政府及省政府의 財政界限을 明白히 할것
五、省軍隊及國有軍隊의 界限을 明白히 할것
六、地方司法은 省政府에서
七、省內에 國立大學은 國民政府에서 其他各大中小學은 省政府에서
八、國民政府의 監察院은 各省에 分院을 設立할것 等이다

五、最近國民黨政綱

最近國民黨政綱으로서 政治、外交、經濟、教育、行政及其他各方에 對하야 詳細한 것을 定한 것이 有한데 그 要項은

(一)全國政治經濟上의 統一을 圖할것 (二)軍閥制度를 廢止하고 民主政府를 建設할것 (三)人民의 集會出版言論의 自由를 保障할것 (四)國內各弱小民族은 自決權을 [illegible]할것 (五)貪官汚吏를 嚴懲하고 廉潔政府를 樹立할것 (六)外交에 關하야는 (一)不平等條約을 取消할것 (二)中國國權을 尊重하는 新約을 取締할것 (三)外人의 投資를 制限할것 等이고 (七)經濟에 關하야는 (一)關稅自由 (二)廢止釐金 (三)訂立新稅則 (四)修築道路 (五)修理河道、建築新港(特別히 黃浦開港에 注重)할것 (六)統一幣制 (七)度量衡을 劃一 (八)國家銀行設立 (九)改良地稅 (十)全國財政을 統一할것 等이고 (八)教育에 關하야는 (一)教育을 改良할것 (二)教育經費를 確定할것 (三)一切教會及外國人의 經營하는 學校는 教育行政機關의 許可를 엇을것 (四)普通教育과 職業教育을 提唱할것 (五)平民의 識字運動을 勵行할것 等이고 (九)普通行政에 對하야는 (一)戶口를 調査하며 生育婚姻移住等을 登錄할것 (二)土地測量과 土地調査를 實行할것 (三)各省은 特別市及普通市를 建設할것 (四)鄕村自治를 實行할것 (五)切實히 土匪를 討伐할것 (六)期限을 定하야 阿片의 栽培及販賣를 嚴禁할것 (十)軍事에 關하야 (一)各軍에 黨代表의 制度를 必히 實行할것 (二)國民黨員은 兵役의 義務가 잇게할것 (三)軍事政治學校를 黃埔以外에 必要한 地點에 모다 設立할것 (四)中央軍事政治大學을 設立할것 (五)軍事委員會及軍事部를 設立할것 (六)民政과 軍政을 分割하되 戰事時期에는 戒嚴地帶의 民政은 軍政의 指揮를 밧을것 (七)國防軍及省軍의 預算을 規定할것 (八)革命勳章을 制定하야 革命에 有功한 將校及兵卒에게 주되 等級을 不分할것 (九)國民의 軍事教育을 普及케할것 (十)軍事航空事業을 發展할것 等이고 (十一)婦女問題에 關하야 (一)婦女는 法律上政治上經濟上教育上에 社會一切地位를 男子와 同等케할것 (二)各機關에서 服務하는 婦女는 生育期間內에는 兩個月의 休息을 與할것 等이고 (十二)工業에 關하야 (一)海關保護政策을 實行키를 力求할것 (二)政府의 公用品은 國內工廠에서 購定할것 (三)政府는 國內工業에 對하야 優越한 保護權을 줄것 (四)工業協會를 組織하고 가장 短期內에 本國工業大會及國貨展覽會를 廣州나 或은 武漢에서 開催할것 (五)在中國의 外國工業의 特殊權을 取消할것 (六)工業學校를 設立할것 等이고

二千數百名檢擧
자바의共産革命事件

今番의 共産黨革命事件으로 檢擧된 共産黨員은 二千數百名에 達하야 檢擧를 免한 者도「뉴가니아」方面에 逃命한 者가 多數한바 瓜哇島政廳軍은 爾今까지 逃命치 못한 共産黨員을 西部「반탐」方面에 追跡中이라더라(사마란廿日發)

니카라구아革命
自由派計劃을米海軍阻止

米海軍驅逐艦은 廿日『니카라구아』의 現保守派政府에 反抗하야 革命政府를 樹立하려는 自由派의 計劃을 阻止하엿더라(니카라구아二十日發)

歐亞聯絡案

伯林에 開催中이든 歐亞鐵道聯絡會議는 十八日 滿場一致로 歐亞間의 直通聯絡案을 可決한바 該案이 關係各國政府의 承認을 得하면 來年五月十五日부터 實施되야 歐亞間의 直通手荷物도 取扱할 터이며 伯林에서 東京까지 直通車票는 二等으로 約三百二十圓이라더라(伯林十八日發)

中國閣議 辭職問題協議

二十日의 閣議에서 秘書長孫潤宇氏는 內閣總辭職問題를 提出協議

한바 出席者는 [illegible] 總長[illegible] 內務[illegible] 三氏 [illegible]이엿슴으로 缺席各總長의 意見을 求하기로 되야 [illegible]의 會議를 待하기로 하엿스며 又 白中條約問題에 就하야 [illegible]로부터 白耳義가 單獨으로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議한 境遇 此에 反對하는 中國은 國際聯盟에 提出할 決心이라고 述하야 可決하엿다더라(北京電)

廣東巨頭 前後北上
重要案協議次

官邊着報에 依하면 去十六日부터 十八日까지 廣東의 財政部長陳[illegible] 外交部長及[illegible] 等의 巨頭는 互相前後하야 北上하엿는데 南昌에서 [illegible] 會見하고 政府[illegible] 其他重要問題에 關하야 協議하얏다더라(東京電)

湘江丸船長釋放

湘江丸遭難[illegible]을 接하고 在中日本當局은 即時唐生智氏에게 嚴重抗議를 하는 同時에 砲艦堅田에 領事館員及南軍代表一名을 태우고 十九日午前六時漢口發現場을 向한 準備를 하엿는데 唐生智氏로부터 各州南軍司令部에 命令한 結果 其後 船長은 無事釋放되엿다는 入電이 잇슴으로 堅田艦으로 하야금 單只實狀調査를 爲하야 豫定과 갓치 現場을 向하엿더라(上海廿日發)

日人使用의 中人 同盟罷業
賃銀引上要求

漢口在留日本人使用의 中國人料理人은 全部賃銀引上을 要求하야 十九日부터 同盟罷業을 開始하엿스며 又新聞社、印刷所의 職工도 賃銀引上問題를 提起하엿스나 다 過大한 要求라하야 容認되지 안을 듯 하더라

廣東政府代表 郭氏日本駐在

廣東國民政府代表의 駐在에 關하야 日本政府가 非公式이나마 承認을 與한 것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目下漢口에 在한 郭松若氏가 그 任에 詮議되는바 郭氏는 東京帝大出身의 醫學士라더라(上海十九日發)

政府의 態度强硬
研究會의辭職勸告를不介意

研究會가 政局收拾根本策의 目的으로 政府에 對하야 議會前에 勇退를 强迫할 것이라 云議에 對하야 政府側은 此를 깁히 介意치 안는 態度를 表示하는바 그 言하는 바를 綜合하면 政局의 收拾에 對하야 研究會의 생각하는 바와 반드시 政府의 見地가 一致할 것은 아니고 政府는 今日의 政情에 잇서서 少毫도 進退를 考慮할 必要를 認定치 안는 것은 다시 多言할 必要가 업다 그리고 萬若 勇退[illegible]하다고 생각하면 敢히 他方의 勸告를 不俟하고 自進하야 進退를 決할 것이며 政府及與黨은 旣定方針에 基하야 新政策을 樹立하고 議會에 [illegible]準備를 다하고 잇슴으로 此際에 何等左顧右眄할 理由가 업다 政務官의 進退問題 가튼 것은 政府의 所信이 充分히 諒解된다면 容易히 解決될 줄 생각하나 此가 能行되지 못하드래도 內閣의 致命傷[illegible]

本黨地位 有利히展開
政局進展을注視

政府對研究會關係의 如何는 政局의 前途에 重大影響을 與하는 것이 되리라하야 目下政界注目의 的이 되여잇는데 一時는 憲本兩黨의 復興을 식히려던 研究會幹部도 松島事件의 展開로 首相告訴事件이 起하고 게다가 朴烈問題에 依하야 在野黨이 硬化하고 種種現內閣의 秘政이 續出함에 鑑하야 人心은 現內閣에서 離反하야 此以上 政府를 援助할 수 업는 까닭에 此月末이나 來月初에 適當한 機會를 보아서 政府와 絶緣하리라고 本黨首腦部는 觀察하고 잇는데 更히 十日까지에 退京할 豫定이던 國公이 二十五日까지 延期된 事實에 照하야 一面床次總裁並小橋幹事長이 數日來青木水野兩子를 訪問한 結果 四國의 事情이 本[illegible]

◇東亞漫畫 順風逆風之辨

安部氏等의 新政黨結黨式
◇……來月五日로決定

安部磯雄、吉野作造氏等의 提唱에 依한 新政黨組織協議會는 二十日芝協調會館에서 開하엿는데 此新政黨結黨式은 畢竟十二月五日 東京에서 擧行하기로 決定하엿는데 黨名은 이즉 決定치 아니하엿스나 二十日協議會席上參考的으로 投票한 結果 勞働黨二十一票、日本勞働黨二十票、社會民衆黨十六票、社會民政黨十六票、民主黨十三票、日本民主黨八票(以下略)이엿다더라(東京電)

收賄疑問
箕浦氏川崎氏間

松島事件의 取調展開에 伴하야 새로히 箕浦氏對川崎次官(當時의 警保局長)間에 贈收賄關係가 存在하지나 아니하엿는가 하는 疑念이 生起엿슴으로 此點에 就하야 鳩山政友會幹事長의 證言을 求한다고 하는바 更히 箕浦氏와 密接한 關係가 잇는 某氏도 喚問될 뜻함으로 同氏訊問의 結果에 依하야서는 箕浦氏와 川崎次官間에 新犯罪事實이 構成될 듯하다더라(大阪電)

山本氏召喚=首相告訴

의 裏面의 人으로 보이는 山本久顯氏는 二十日午後一時角南檢事正의 召喚을 受하야 第一號檢事室에서 詳細한 取調를 受한바 同氏의 取調는 松島事件을 詐欺罪로 할는지 瀆職罪로 할는지의 點에 就하야 重要한 解決을 與하는 것이라더라(東京電)

又怪文書出現

怪文書가 頻頻히 現出하는 此際 又復十八日夜各政黨과 貴族院議員等에 宮內省內에 잇는 十五銀行支店의 金庫에 엇던 不正事實이 잇다고 記錄하야 配布하엿다는데 此亦義者의 怪文書와 갓흔 者의 所爲인듯하다더라(東京電)

銀行條令改訂
來議會에提案

現行銀行條令은 明治二十三年制定에 遡하고 又其施行細則도 大正五年에 改正을 行하야 今日에 時勢에 不適한 點이 多하기 때문으로 大藏省은 今回可決된 普通銀行改善案에 基하야 法規關係의 事項을 適當히 整備하고 銀行法上의 解決을 明白히 하야 不備의 點을 補하고 全般에 亘하야 改正을 加하야 새로히 銀行業法及同施行細則을 制定한 後 來議會에 提案하기로 되엿다더라(東京電)

消息

◀齋藤總督 二十四五日頃歸任豫定이던바 私事로 月末까지 滯東

橫說竪說

◇이번 京城府協議員을, 首席으로 被選한 이는, 어엽분 딸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번에는, 사위候補者들이, 또, 어엽분 딸들을, 내노하서, 當選運動을 할텐가

◇救世軍뿌드大將은, 살그머니, 朝鮮을 떠나서, 電報로, 朝鮮人士官學生二十七名의, 黜學을, 嚴命하엿다, 다리부러진將帥, 城안에, 숨어서 號令格인가

◇東京서는, 政友會와, 政友本黨이, 커마다, 次期內閣은 自己네 것이라하고, 山本權兵衛도, 제것이라하고, 若槻氏는 안내어노흔다고, 엇대나, 한장 사거리식, 돌리는것도 妙方일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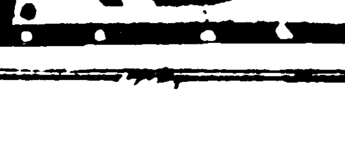
期間內 五分割引 二十二日부터五日間

向上會館에 防寒服大賣出

세비로三揃 오버코트 돈비 만도 兒童服 其他洋服 一切

販賣所
南大門通二丁目==電本四一二八番
本町一丁目==電本三二三三番

高級洋靴專門製造



京城府公平洞八○番地 自作靴所 振替京城九五八○番

急告 檜木軸杆子 製材工募集

檜木軸杆 [illegible]

◇增築擴張◇入院隨意◇

碧城醫院
院長 姜泰浩

痲疾藥 リベール

竹村藥房

ClibPDF - www.fastio.com

◇사진설명◇ 재작일입경한학자일행과「캠베지」박사(흰옷이)의싸인

朝鮮을來訪하는世界의碩學

入國後의첫印象은 到處의沃土良田

—우리호주는외교권만업는자유국 귀국민족의행복이오기만빕니다—

◇濠洲地質學者「레일러」氏談

재작일에입경한호주(濠洲)학자일행중의씨드니대학디질학(地質學)교수「레일러—노코든」양씨는 차중에서 마중간긔자를보고아래와가치말하더라

◇「조선으로오면서 가장먼저인상이된것은토디가비옥(肥沃)하야 남김업시경작(耕作)이된것이외다 우리호주에는 대규모의농사를하는고로넓은들에보리나심으던지그러치안으면목장(牧場)으로쓰는데 조선은커와가치 한치도남지안토록 논을풀어노앗습니다

◇녀자들이머리에물건을이고다니는고로데려이매우바릅니다

◇조선의디질(地質)、산의모양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우리호주와별로다른것이업는것갓습니다 물론차창으로 잠시본것을가지고단언할수는업겟지요

◇호주는남반구(南半球)에잇는고로 철이써꾸로되여 지금차차여름이되여가는시절입니다 호주의 정치뎍상황을 무르시니 호주는본래 영국사람이식민하야 마츰내한자치령(自治領)을만든것으로 지금은 영국(英)본국에서는아모런간섭이업고 다만외교에 대하여서는 영국이대표권을가젓스나그것도점차로호주의독립외교가생기게될형편입니다 정당으로는 로동당과 자본당의세력이 백중(伯仲)하여소수의중산(中産)계급의투표가승부를결단하며 계급뎍편견(偏見)은 로동당 자본당이 다가치 가젓스나실제정치에는 그리 중대한충돌이업습니다

◇백인과본토인의관계도아모런불평한일이 업습니다 본토인으로 말하면 오십년전까지도 사람을먹는 인종으로 국가란민족이란 관념은업고 오직부락뎍정치가잇서 지금은 자치뎍부락회의가 잇서 전부토인들이 자긔네일을 처리하고오직당관(長官)과권도(全島)회의의반수(半數)만이영인(英人)이외다 토인들이 양을파는것은정부로서엄금하는고로그들은백인과인도인에게토디를세주고말하자면중화로운디주(地主)의생활로돕고먹습니다」

◇조선문데와호주이민(移民)문데를무르니

「우리는 디질학자(地質學者)에지나지못함으로정치에관한일은잘몰읍니다 더구나조선사정은아조캄캄합니다」하며긔자의설명하는조선인의일반생활과사상을매우유심히 듯고「그런일은조곰도 몰낫습니다」 가쟝운명에대의그러한해결이잇기를축원하는일외만족한해결이잇기를축원합니다」하고의미깁흔한마듸를마즈막으로던진다

◇入京한一行과 直行한赤露學者

재작일에입경한이들은 ▲호주파학협회회당「캠베지」박사부부 ▲호주「멜본」대학교수「벨」박사부부 ▲호주「씨드니」대학디질학교수「레일러」 ▲호주「콩런」양 ▲호주「멜본」대학교수「우드레엔」박사부부 ▲하와이「십자간」박사부인 ▲하와이「포만」양등인데 경성에 하로묵어서작일오후일곱시십분발로봉텬(奉天)으로향할예뎡이요 로농(勞農)로서아의「니키포로프」(해삼위극동대학(極東大學)교수)일행은경성에머물지안코「할빈」으로직행하엿는데씨는간단히「이가치 차자주시니매우감사합니다 조선이란나라의 경치와풍속과 사람이 다신긔한것이외다」하더라 이로써범태평양(汎太平洋)학술회의대표중 조선을통과할사람은 다지나갓는데 아직도 불란서(佛蘭西)한사원(翰士院)간사「라크로와」박사와 미국「클라크」대학총장「애트옷」박사일행이뒤미처오리라는바일자(日字)는미상하다고

日人十八名에 朝鮮人十二名

昨年보다二名이준朝鮮人側 京城府議選擧開票結果

재작이십일 오전여덟시부터 시작된 경성부(京城府)협의원 선거전은 미증유한 대혼잡을 일우어 오후한시에는사천칠백여명의입장자가잇섯스며 오후다섯시까지 총계칠천칠백이십일명의입장자가잇섯고 동일 오후여섯시부터 투표전부를정리하여 각후보자명의별을따라 선거계원백십여명이 투표에씨인일홈을읽기시작하엿스며 후보자운동원수백명은 개표상한편에서 긴장치고잇섯다 동일한시반에 일으러 개표의총명수를발표하엿는데 당선자와 락선자의 덤수(順序)과일홈은 아래와 갓더라

◇朝鮮人側當選者

▲二七七票 鄭完圭 ▲二五二票 朴榮根 ▲二四八票 閔濬鎬 ▲二〇八票 韓萬熙 ▲二〇三票 宋達燮 ▲二〇〇票 李恒鍾 ▲一九〇票 李東善 ▲一七四票 李升雨 ▲一七三票 萬宗鎬 ▲一六七票 李仁川 ▲一六二票 金思演 ▲一四九票 方奎煥

計十二人

◇日本人側當選者

▲三一〇票 山崎鹿藏 ▲三〇七票 高木德彌 ▲二九五票 淺野太三郎 ▲二五〇票 肥塚正太 ▲二四四票 河合治三郎 ▲二二五票 大村百藏 ▲二二一票 增田三穗 ▲二一五票 成松綠 ▲二一一票 大垣丈夫 ▲二〇二票 小林藤右衛門 ▲一九一票 古城菅忠助 ▲一八二票 池田長次郎 ▲一六四票 寺田滴 ▲一六〇票 安藤郁郎 ▲一五九票 武上安、▲一五四票 三上康 ▲一三六票 富井實太郎

◇次點者

▲一三六票 李弘鍾 ▲一三五票 李康鍾 ▲一一四票 崔麟宇 ▲一二三票 李丁顯 ▲一一九票 金鍾泰 ▲一一三票 申應熙 ▲五六票 趙泰八 ▲五〇票 竹內菊太郎 ▲二一票 大野多郎

로선자와가치 차뎜자의 락선을 보엿는데 일백삼십륙표를어든 리홍종(李弘鍾)씨는 년령관계로 동덤을어든 일본인 부정실태랑(富井實太郎)씨가 당선되엿스며 조선인당선자는작년보다두사람이적어엇더라

宣川서軍資請求 車輦館서被捉

한십에서세번이나청구하다 制令前科者張讚涉

선천군선천면 천북동(宣川郡宣川面川北洞)오백일번디 당찬섭(張讚涉)(三一)은지난십륙일 차련관(車輦館)경찰에데포되여방금 선천경찰서에서 엄중한 취조를 맛는다는데 전긔당찬섭은 얼마전에 동군심천면오봉동(深川面五峯洞)과상민(朴尙民)(二八)의 집에가서 ○○금을 세번이나청구하엿스나 뜻을일우지 못하고 차련관을것처 자긔집으로 도라가려든길에 근처사람의 고발로 경찰에게 데포되야 아즉취조중임으로 엇더한련락이 잇는지도 알수업스나 그는일즉 대정구년도에 제령위반으로 오개년간감옥생활을하다가 작년봄에 출감되엿든사람이라더라(선천)

廣告紙부친 青年三名檢束

김천금릉청년회(金泉金陵靑年會)간부홍보용(洪甫容) 김정구(金正九)량씨를지난십팔일에돌연히김천경찰서(金泉警察署)에 검속되여 각긔구류 일주일식에 처하엿다는데 그들은 김천국자조합(金泉麴子組合)과김천군당국(金泉郡當局)간에불법행위에 관하여 지난십팔일에 집행위원회를개최하고군당국과국자조합의 흑막을 철뎌히조사하여성토연설과군민대회(郡民大會)개최를결의하엿다는광고를시가에붓치고그가치검거된것인데김천서에서는사실을조사중

◇冬寒이迫頭한데 各地에強盜頻頻◇

不安한江原道

맘놋코도라다니는강도단 이번에는旌善、寧越에出現

최근강원도디방에는 실로 무인디경가치 무긔를가진 강도단이횡행하야 인심이 극히흉흉한이때에 지난십일경에는 강원도정선(旌善)에 살인강도가 물발하야다하며 이어서 영월(寧越)군에도 강도가출현하야 부호의금품을 위협강탈한후 도주한사건동 현일송연한보고가 강원경찰부와 춘천지텅검사국에 도착한다는바 이에대한 상세한내용은범인이포의관계상 비밀에부침으로 아즉상세히보도키는 어려우나 목하 추수긔(秋收期)임으로 금융의융통이 원활해지는긔미를타서 강도단의 출몰이빈발함으로 경찰측에서도 비상히활동중이라더라(춘천)

禮山에도強盜

두명이산중에돌현

지난십칠일에 충남레산군 대술면배치(忠南禮山郡大述面裴峙)박갑동(朴甲童)이가콩열섬을가지고 레산뎡거장압헤가서 어느운송부에 팔고 콩갑팔원삼십일전을차저 가지고도라가는도중시르미고개에 이르럿슬 때에마츰오후 여섯시경임으로 거어스름할때에 돌현히 장한두명이나타나서 박갑동의 가진돈을 전부빼앗고 종적을감추엇다는데그급보를접한 레산경찰서에서는방금범인을 엄탐중 이라더라(레산)

覆面한棍棒隊

세명이대구근처에나타나

지난이십일오전비시경에경북달성군다사면매뎐동(達城郡多斯面梅田洞)김모(金某)의집에 복면한세명의강도가방망이와몽동이를들고 침입하야 금품을강탈도주하엿다는데이급보를접한대구서에서는 팔방으로 범인을수색중이라는데그면내에는얼마전에도 강도사건이잇섯슴으로 경찰은조련한가운데활동중이라더라(대구)

◇개표하는광경

重病悲觀縊死

새옷가라입고

황해도 안악군 룡순면 옥정리(安岳郡龍順面玉亭里)이백십사번디김락구(金洛九)(五〇)는지난십사일밤에 동군대원면 상산리(大遠面上山里)한천동시내가버들나무에목을매고자살한것을그익일인 십오일아츰에 발견하고 즉시소할망암주재소에그사연을 고발하야 검시한후 공동묘지에 매장하엿다는데전긔김낙구는일즉이 부모를여이고 의탁할곳이 업서이곳저곳으로단이며고용사리를하여오든바몃달전부터엄종다리를알아서일을못하게되야할일업시 지난달초하루날 전긔외오촌의집으로갓든바일후병세가 덧치게되여 심히 고통을밧든중 십사일저녁에는 세수를한후 새의복을가라입고상산리엇든냉면집에가서국수와지사먹고그만목을매달고죽엇다더라(안악)

槐山面書記 公金橫領消費

괴산면서긔와도안면서긔가 一名은自首、一名은逃走

충북괴산군 괴산면서긔(忠北槐山郡槐山面書記) 김사순(金思淳)(二八)은 다년간동면서긔로재직중이든바 년래채무로 공금을 횡령소비한것이 일천삼백여원에달하엿슴으로 전긔 김사순은 그돈을 판상할도리는업고 본직을계속하면 계속할사록 소비되는금액만 증가할것을 깨닷고 군면당국에 자현하야 죄상을 자백하엿슴으로 지난십칠일 오후여덟시에 괴산경찰서에 유치되여방금취조를밧는중 충북 괴산 사하엿다더라

충북괴산군도안면서긔(忠北槐山郡道安面書記) 리용긔(李容基)는작년부터그면서긔로 재직하면서 주색에탐혹하여 한달전에 공금이백여원을 횡령도주 하엿슴으로 괴산경찰서에서는 방금 리용긔를수색중이라더라(괴산)

石油船爆破

이십일에「발데이모아」에 입항중인 서뎐(瑞典)석유선「만데일려」호는그만폭발되야 선원중십칠명이 참사하엿다더라

全家族燒殺 自己도割腹自殺

일족오명을불질러죽이고 자긔도불속에서배를갈러 放蕩한日本人의兇行

이십일오전두시반경에일본웅본현록본군도뎐촌(熊本縣鹿本郡稻田村) 좌등혜팔(佐藤惠八)(五八)의집에불이나서 좌동의처초지(初枝)(五〇)와 그밧게 남녀식구여섯사람이 벼개를 빈채로타서죽엇슴에 그것을 검시하엿본즉 당남(長男)외에 다른다섯사람은 인몸에지독한상처가잇섯다는데 그원인은당남지문(至文)은 몹시방탕한자이엿슴으로 부모들이 집에부치지를 아니하엿든것에한(恨)을품고도귀로써그가치흉행을하고다시집에다 불을붓치고 자긔도 배를질너서 죽은것이라더라(웅본뎐보)

創立된藥品株式會社

만흔방면에서찬조

조선에도 양약을만히 쓰는중이나개업의와 약종상들이 전부일본인혹은기타의 손으로 양약을사드려사용하는것을유감으로생각하고 양약도우리 조선사람의손으로 제조하고 판매하여야되겟다는취지로뎡상호(鄭尙好)씨외아홉사람의 발기로 데일약품주식회사(第一藥品株式會社)창립을발기하엿다함은본지경제란에긔보한바 어니와 이에대하야 여러방면으로부터그취지에찬조하는사람이 만히잇서 응모자가다수하야 이미예뎡주수(株數)가 전부신입되엿슴으로증자하게될듯하다는데 지난이십일부터 공모에착수하엿다하며창립사무소는시내종로(鍾路)일뎡목오십오번디에두고 목하크게 활동하는중이더라

體育會主催、本社後援 第七回全朝鮮蹴球大會

最後의榮落을爭할 今日의各團優勝戰

小學團崇德對安岳=中學團培材對徽信 專門團延專對崇專=青年團戊午對朝鮮 午前九時半부터◇貞洞培材球場

련하야 사흘동안 외긔와기술의격렬한싸홈을 거듭하여온조선체육회주최 본사후원의데칠회전조선축구대회도 대회데삼일인 재작이십일로써각단의준우승권을맛치엇슴으로 금이십이일(월)에는 우승후보에까지드러온 각단상승자(常勝者)들이 최후의 영락을다투는결승전을거행하게되엿다 작일은 일요일이엇슴으로 예수교학교관계상 부득이휴회하지안을수업게되야 오늘(월요일)로써 대회의종막을 고하게되는것인데 소학단으로는작년의우승교인 평양의숭덕학교와금년차음으로출장한 안악공립보통학교가결승을하게되엿고

◇…중학단 으로는역시 작년의 우승교인배재고등보통학교와 근래크게그긔세를돕힌 경신학교가 서로우승을닷토게 되얏는데 더욱이량편학교의다수한학생들이 서로기고(旗鼓)를가초아가지고 굉장히응원하는그응원싸홈이 더한칭볼만할 것이오 또뎐문학교단으로는멀리평양에서 올라온숭실뎐문학교의강「팀」과 경성뎐문학교계의패왕연희뎐문학교가 서로그패권을다토게되엿스며 청년단측으로는 평양에서가장신진의 정예(精銳)들로만망라된 관서(關西)의패(覇)무오단과 일본원정에크게 성공하고개선(凱旋)한작년우승「팀」조선축구단과서로

◇…자웅을 결단하게되야 과연이번 대회의최후와아울러 금년운동계의「씨슨」을마즈막으로

맹렬한싸홈이 될것이다「누가 익이고깃분의 우승을우승가? 누가지고 롯분한 눈물을쓰릴가?」과연전조선뎍으로영광잇는우승의 패권을각기바라보고잇느니만큼 각단용사들의 결심은바야흐로 가장구더지어오늘의뎡동배재고보교 운동장은 우승의바다、눈물의 바다로화하고말것이다 경기순서는오전아홉시반부터 시작되야소학단중학단전문학교단 청년단등을순차로 진행할터인데 경기시각은소학단은 륙십분、그외는 모다구십분식이다

◇가장볼만할 戊午對朝蹴戰

명향과갓치 우승권에 가장맹렬하고또한 볼만할것은무오단과조선축구단의 대권일것이다 무오단은 [illegible]

지고상경하야 그단원들이축구에는모다「포아드」데완숙、김재신、림룡업군등은축구로서는 그기술이완성되엿다 할만큼입신의기가잇고또한 조선축구단은일본각디를풍비하엿느니만큼 역시축구계에일류명장들이오 더욱이 그중에「포아드」김원태、현정주 김재뎡군등은 역시그기술이완성되엿다할만하야 조선축구계의쌍호(雙虎)인두강「팀」이서로자웅을결단하는 광경은과연기어려운가장 통쾌한싸홈이될것이다 우승의영관을압헤두고운동게에잇서서 죵처럼어려운량군이필사의 력전을하는광경은관중의심흥을 뼈뼈로서늘케하지안코는 마지안을것인데아지못게라 그승패는과연어떠케될것인가?

準決戰跡

통쾌한경기 【第三日續報】

작지속보‖ 대회데삼일(이십일)오후에는더욱 굉장한인기아래 숭실뎐문학교와「세부란스」의학뎐문학교의 대뎐은숭실뎐문이 익이엇고 작년우승교 연희뎐문학교와 법뎡학교의대뎐은 연희가 크게익이엇스며 유력한단체 평양무오단과 한양구락부의 대뎐은무오가 불만하게 익이엇고 작년우승「팀」조선축구단과 수원축구단의대뎐은 조선이간신히익이엇다‖당일 오후의경과는여좌

崇專快勝 三對〇 世專敗

전반전에숭실이「꼴」두덤을느리드는한(작지기보)숭실뎐문학교와「세부란스」의학뎐문학교의대뎐은 후반뎐에드러가약이십일분만에 숭실「오라이윙」차영은(車永恩)군이「파쓰」한것을「레프트인너」김원섭(金元燮)군이「슛」하야또「꼴」을너허결국「꼴」삼대령으로숭실이 익이엇다 (레퍼리李丙三氏)‖숭실의「멤버」는데일회전과 갓기에여긔는생략함‖

◇崇專「꼴킥」八프리킥四 ◇世專「꼴킥」十六코너三프리킥一

世專	
G	[illegible]
FB	[illegible]
HB	[illegible]
FW	[illegible]

延專大捷 十二對〇 法政敗

연희뎐문학교와 법뎡학교의대뎐은 오후한시 오십삼분부터연희「킥어푸」로 개시되엿섯는데연희는 처음부터전선의총공격을개시하야 전반(前半) 약오분만에리도용군의「파쓰」한것을김윤기군이「슛」하야「꼴」을넘긴것을 비롯하야 계속뎍으로「꼴」다섯덤을 너헛고후반(後半)에또다시련하야「꼴」을너허「꼴」합게십이대령의대차로연희이크게익이엇다(레퍼리徐丙羲氏)

◇法政「꼴킥」卅一코너三프리킥五

法政	
G	[illegible]
FB	[illegible]
HB	[illegible]
FW	[illegible]

延專	
G	[illegible]
FB	[illegible]
HB	[illegible]
FW	[illegible]

◇꼴킥一프리킥四

朝蹴勝利 二對一 水原惜敗

조선축구단과 수원축구단의대뎐은오후네시십오분부터 수원「킥어푸」로개시되엿는데 량군의기량은 그야말로어숫비슷하엿스나수원군은후반뎐(後半戰)으로조선단을매우괴롭게하엿다 그러나전반(前半) 약아삼십분만에 조선접쳐이「꼴」을자누구고열볼가서「킥」한「꼴」을「갑파」약앗다뒤으로노치어「꼴인」에되얏는데후반(後半)에는약십분만에 수원리갑록군의「롱킥」을바다「포와드」들이 일제히「꼴」을향하고 드러가다가 박봉득군이「슛」하야「꼴」을너허한덤을 회복하엿다그후여러번수원의 조흔기회만혓섯스나 모다노치엇고 조선도 여러번「슛찬쓰」를 노치어오다가 약이십분만에 김재뎡군의「파쓰」를 황명룡군이「슛」하야「꼴」을너허 약전「고루」십분만에「꼴」이대일로수원이 맛갑게대하엿다당일조선군에는「꼴킵퍼」김영희군의 공로가매우만헛다(레퍼리徐丙羲氏)

◇꼴킥十코너七오프싸이드二프리킥五

水原	
G	[illegible]
FB	[illegible]
HB	[illegible]
FW	[illegible]

朝鮮	
G	[illegible]
FB	[illegible]
HB	[illegible]
FW	[illegible]

◇꼴킥九코너二오프싸이드一프리킥八

戊午의美技 八對〇 漢陽敗

무오단과한양구락부의 대뎐은 오후세시십분부터무오의「킥어푸」로 개시되엿는데 무오의 공격은실로 입신(入神)의기술이잇는듯하야 한양도기술이상당한것을보엿으나 [illegible]

漢陽	
G	[illegible]
FB	[illegible]
HB	[illegible]
FW	[illegible]

戊午	
G	[illegible]
FB	[illegible]
HB	[illegible]
FW	[illegible]

◇꼴킥十五코너三오프싸이드一 프리킥八(레퍼리鄭貢昌氏)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高木德彌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淺野太三郎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鄭完圭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朴榮根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肥塚正太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閔濬鎬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河合治三郎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韓萬熙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宋達燮

今般 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 同情에因하와 幸히當選의 榮光을蒙하얏삽기 玆에紙上으로써 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增田三穗

ClibPDF - www.fastio.com

地方論壇
中學을設하자
八萬民衆에哀訴
成川 一記者

敎育이우리人類의能力을啓發하는데 가장共同的條件이안이되지못하며 또한人類의品性을涵養하는데 根本的方便이되는것은 原理라는것보다도事實인外에 이제 隣隣하는時代의 어떤社會와文明이나 또한어떤民族의 權利가 모도다敎育에基因치안이한바이업다 그럼으로 決然코 이地上에잇서서 自己의運命을 自己스스로가開拓하고저하는進取的한 決意를把持한者나 弱肉强食의鐵則 生存競爭의脅威가 極端에極端을거듭하는 社會에立하야서自己의生存을自己스스로의 손으로保持코저하는 遠大한理想과快活한氣象을所有한者는 누구를勿論하고 모도다! 이敎育에 傾倒하야 그들의目的한所期를貫徹치안이치못하는바이니 果是敎育은 人類의生長處世에 最好의捷徑이라고 안이할수가업도다

二

이제現下우리成川社會의實況을 顧察하면 적어도自我에눈이 뜨고生의切實한 늣김이업지안는 者人으로써는엇던感激에서 쓰러 오르는 熱血의熱淚를禁할수가업다 사람의數는八萬이며 무나그들이모다 無智沒識하며 江山이잇스나 頹廢치안엇드냐? 産業이 엇더니엇더니 떠드나 그러나 보잘것이무엇이며 떠든다나 學術에잇서서 社會의 場에내놀만한자랑거리가 무엇이잇드냐? 고러나 悲慘을아지 못하는 生存競爭의 恐懼가 큰鐵規는그亂力을 餘分도업시發揮하는이때에잇서서 우리의 生活은 將次그무엇으로써生을圖코저하며 그들의樂을享코저하는가? 나의熱血湧淚가流하는 者數가何에在하며 悲鳴大呼하는所以가那에在하는지를 知乎아! 오르지生存의競爭의 激烈한緣故이며 오즉그들의 發育者核心이 深刻痛切한所以가 안인가?

三

成川의八萬生靈들아 눈을들어 四方을살펴보며 귀를기우려 그들의부르지즘을드르라 每年本郡七個所의 普通學校에서卒業하는 三百餘의兒童가운데서不過十餘人을除한外의 多大數의 兒童들은 學資金이업다는單一한條件아래에서 갈바를아지못하야 將落山下에서哀鳴大哭하며부르짓는悲命聲!『宇宙는無心코社會는薄情코나』하면서宇宙를怨呼하며 社會를咀呪하는 悲哭聲을聞乎! 萬若에우리成川郡에 一個所의中學機關이잇든들 每年增産되는未來의主人公될兒童들이 哀哭할理가何에在하며 咀呪할理由가那에有하랴! 아즉도 그들은天眞그대로의것이니 오즉그들에게는 神그대로가잇슬뿐이오 人이업스면 善은잇슬지어정 惡은秋毫도업는爛熳한神童들이 목이터지도록論히부르지질때에야 그들의 가삼이얼마나터지며 압핫스랴?

四

八萬의成川生靈諸君! 한번만 더 一切深히 生覺하여보아라! 우리에게 活路가잇다하여도 오즉敎育 그것이잇슬뿐이오또한 우리에게 解脫의關鍵이잇다고 하여도오로지 敎育이안이라면 그무엇이잇슬것이냐 이와갓치 敎育의 絶對偉力을 認識하며 또한敎育의絶對必要를 늣기게 된今日에 우리가엇지하야敎育에對한 誠心眞意가 不馳弛緩하든가? 八萬의住民가운데에 富豪가업슴도안이며 志士가업슴도안이어만은 엇지그리도諸君의敎育에 抜한 成果가업드냐! 獨逸이나 英米갓흔歐洲의『先導國에比하야볼것도업거니와不過五十年에 先後의別이잇는日本을보아라 그들에게比하여도 우리와는千里萬里의 差가잇는것이 안인가 荒漠한이江山 荊棘의 이社會에잇서서라도努力만하면 光明이生하고奮闘만하면 將來가잇슴을確認하는同時에 오직奮鬪의如何와 努力의 與否에 正比例하야興盛? 亡滅?의際程가判明되는 것이니 그럼으로써人은 무엇보다도 몬저生長發達의原理原則을차저敎育의 完成을부르짓노라

八萬의成川民衆아 再三深思하여라 十萬에近한生靈이사는 곳에 大學이나 專門學校는업슬지언정 中學校하나이 업다는것은 敢히社會에對한 面目이업지안은것이안인가 이에中學校期成을提唱하는同時에곳 實行하여주기를 諸君에게哀訴하노라

各府議員選擧 開票結果如此

平壤三十人

平壤府協議會員改選投票는平壤公會堂에서 지난二十日上午九時부터始作하야同日下午四時까지 무사히投票를終了하고 同七時부터卽時開票를始作하야當選된諸氏의 氏名은左와如하다더라(平壤)

◇朝鮮人側(十九人)

金能秀、韓千裕、李春燮、洪敬杰、吳崇植、鄭九煥、鄭鎭瑞、李東贊、楊義晧、楊濟晧、康秉鈺、鄭世胤、玉東奎、林寧瀞

◇日本人側(十一人)

中村、石隈、御水、內田、丸山、松尾、辰己、小林、村上、中村、佐久間

大邱二十人

大邱의府協議員選擧는去二十日午前九時부터第一小學校講堂에서行하엿는데總有權者朝鮮人六百一人日本人千十八人合千六百十九名에서行使不能者日本人二十三人朝鮮人六人을除하고또그中當日投票總數朝鮮人四百五十九人日本人八百五十八人合千三百十七票로午後四時부터開票한結果아래와가치當選되엿다더라(大邱)

◇開票結果

朴明兄七十一點、柳敎夏七十點、鄭在學六十一點、韓益東五十六點、金宣均四十七點、鄭道均三十九點、徐東植三十九點、金牟性三十八點、日本人側武居敬藏、小口晩、小川德長、小野元太、加藤一郞、吉武和子外、青木東信、黑田閑治、大塚鐵次郞、大平總一郞、畑本儀平、丸木要三

釜山卅二人

釜山府協議員選擧戰은去二十日午前七時부터同府에서開催되엿는데府議에는數百個의爭奪戰가벌어데에우形勢가險하엿는데投票有權者二千二名에서一千八百四十一人이投票하엿스며無效가九人當選者一五二人이라는바當選者氏名及點數는如左하다더라(釜山)

吳崗根(四六)魚大成(四四)李敬植(二八)李龍漢(二三)小原保(四五)芥川完一郞(五六)山卅定(九二)松岡甚太(八二)吉岡愛眞(二九)荒井信三(二五)古賀九一郞(四六)淸水忠次郞(十七)山田勝七郞(三六)西村茂次郞(四五)香椎源太郞(八四)平野宗三郞(五〇)小坂唯太郞(五九)山本榮吉(六八)上杉吉太郞(九五)岩橋一郞(六八)田端正平(六五)樋口利春(六八)坂田文吉(八九)石原源三郞(八九)西條利八(八八)武久捨吉(七八)國司道太郞(七一)大池忠助(八〇)矢頭伊吉(四二)中島鶴太郞(五二)竹下隆平(六四)川島喜鎬(九)

仁川二十人

오래동안白熱的爭奪戰을繼續하든仁川府協議員選擧는豫定대로지난二十日에山手町公會堂에서擧行한結果다음과가치當選되엿는데出馬되엿든朝鮮人十二名日本人十三名中에前者中四名後者一名計五名의落選을보게된바當選氏名及票數는다음과갓다더라(仁川)

三八票金彰憲、三一票鄭順澤、二八票金允福、二七票孫亮漢、二七票安永淳、二四票張錫佑、二一票鄭世澤、一一票金相勳、八四票今村幾次郞、五四票丹羽茂三郞、五〇票內海淑郞、四九票中山松太郞、四六票吉田秀次郞、四一票河野竹之助、三九票力武嘉次郞、三八票後藤連平、一七票大濃谷榮次郞

元山十五人

去二十日은元山府協議員改選期日임으로早朝부터府廳出入口兩便에天幕을張設하고選擧事務所를만들어노코競爭이激烈하엿스며正門外와市街거리마다看板『비라』며候補者를集合으로大混雜을이루엇고午前十時半이되자選擧場에는木村府尹以下係員一同과道地方課小田國元山署長渡部警部等이列席하엿고第一着으로殖銀支店中井篤一君이先票하고候補者들은自働車를모라票集하야投票數가二百三十六點이午前에達하엿고午後一時부터다시始作하야總投票數六百二十六票中無效가一票이오當選者票數는左와如하더라(元山)

一、有權者總數　九三三人
一、投票數　八二四票
一、無效　一二票
一、棄權及失權　一〇九票

二七票增田米吉、二二票藤井八取藏、二五票村田孚、五二票張鈴、五〇票伊藤隆弍、四八票長野長藏、四八票杉野多市、四五票朴敬梅、四三票鳥居千三郞、四三票福井伊三郞、三八票北谷德一、三七票金宗俊、三五票吉四興熙、三三票小野文吉、三二票李春河、三一票廣網衡、二九票大野榮作、二五票新谷新七、合十五人

利川讀者慰安

本報利川支局에서는今番利川郡農林産物品評會를期하야劇界의明星인兒弟座安聖完一行이來利하야去二十五日부터同二十一日까지當地官廳里에서開演케됨을機會삼아本報愛讀者의厚意를萬一이라도報答키爲하야初日부터持하야割引券을發行配付하야毎日午後八時부터觀劇慰安케한다더라(利川)

巡廻探訪 (五百四十五)
水産과製以은 西道에首位
敎育機關이不足 (2)
鐵山 一記者

鐵山의敎育界로는 中等程度의學校로도 私立으로는相當한學校가無하야地方人士間의一大恨이며 公立普通學校는 八面에三校이요私立學校가三四個所가 有할뿐이며 日本人公立小學校가 一個所요書堂이百十五個所인데 鐵山의敎育機關을合하면 百二十二個所이니그大況을紹介하면 左와如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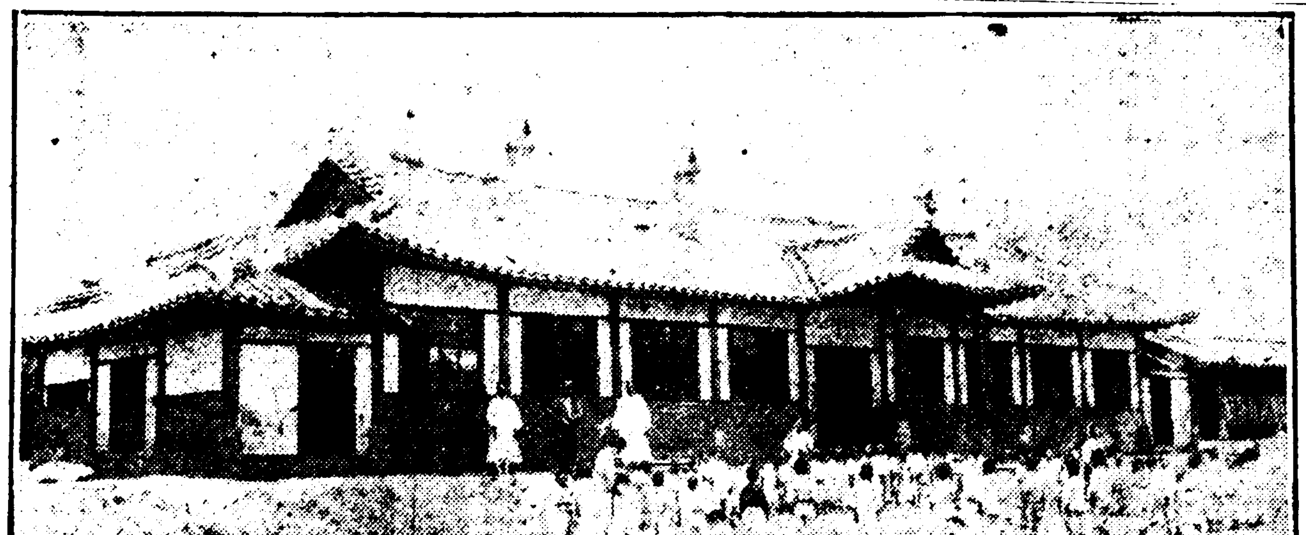
敎育界

◇鐵山公普校 鐵山面東部洞(邑內)에在하야 光武十年八月九日에創立된 舊韓國時代의歷史깁흔新明學校 後身으로時勢의變遷을따라 明治四十四年五月에普通學校로 改稱되고同年八月에朝鮮敎育令에 依하야鐵山公立普通學校로 變하엿스며今春까지 十三回로三百十六名의卒業生을 出하엿고 現在六學年 九學級으로 分하야在籍生이 男四百八十餘名女五十餘名合五百五十餘名이오 압흐로一學級을加하야 十學級으로延長하여 校舍도增築하리라하며 本郡의中央地點인邑內同校에 高等科를附設케되여來年度부터此에對한 施設에着手코저한다하며 職員은中原國藏校長外男女七人이더라

◇車輦館公普 車輦館市內에在한바舊韓國時代의韓興學校後身으로 春風秋雨의가진苦楚를當하며 敎育界에만흔貢獻을하든中 時局의轉換으로普通學校가되엿다가 朝鮮新敎育令이頒布될때에 車輦館公立普通學校로 變更되엿스며現在六學年十學級으로 在籍生이六百三十餘名이라하며 職員은校長筒井澄人氏外男女九人이더라

◇扶西公普校 大正十二年十二月에 扶西面前面長鄭仕宗外有志의努力으로 設立되여扶西面仁平洞에在하니 私立學校가一個所도無한 本郡西邊에惟一한兒童敎育機關이며 現在四學年으로在籍生은二百五十餘名에不過하나 地方人士의期待와活動이深厚하다하며 校長은增田忠三郞氏이며 職員은三人이더라

◇明興學院 光武三年에創設되여歷史가長久한 相當한敎育機關으로 多數의英才를養出하든中己未年民族運動이 勃發하엿슬때에얼마동안 閉校되엿든關係로 學校認可取消를當하고只今은 學院制로八九十名兒童에게敎授하는바 經費는耶蘇敎會에서 支拂하며院長은金應相氏인바 昨年度에氏의熱誠으로校舍를修繕하여新鮮한 校舍가되엿스며男女共學이라한다



◇車輦館幼稚園 大正十二年三月에兒童敎育에 專力하는車輦館靑年會를 先頭로創立되엿스며地方人士의 爭先寄附로現在基本財産이 三萬九千餘圓의巨額에達하야 財團法人으로手續中이라하며 男女七十餘名의天眞爛熳한兒童을 收容中이며院長은鄭周泳氏이고 保母는四人이라더라

◇光成學校 隆熙三年에設立되여栢粱面雲川洞에 在한바地方有志의活動과 援助로發展되여私立普通學校로 昇格코저熱烈히運動中이라하며 校長은金益煥氏이다 其外에私立學校로는雲山面合洞光東學校와栢粱面 壽富洞信興學校가 有하며雲山面 白蓮洞 雲林學院이有하야兒童敎育에 專力하며各洞耶蘇敎會가有한 地方에改良書堂과 漢文만專工하는 書齋가百十五個所로 就學兒童이四千六百餘名에達한다고 한다

◇寫眞說明◇ 兒童遊戲光景(車輦館幼稚園)

◇次回는春川◇

龍岡農民恐慌
棉花와苹菓下落

平南龍岡郡은在來有名한棉産地로서年産額이二百餘萬斤에達함으로棉作의良否와棉價의高下는當地農村의經濟界를左右하는것인바本年棉作은平年作에不下하나外棉의時勢低廉은當地在來棉에도大打擊을與하야今冬의棉價는昨年에比하야殆히半價로上花一斤에十二錢으로下花에는七八錢外지暴落되엿슬뿐아니라各繰棉業者는先低를念慮하야操業을停止하고買入치아니함으로輸移出의道가阻止되야綿花市場이閑散함에따라綿花生産을唯一의財源으로하든當地農村의斯業者는恐慌을惹起케되엿스며鎭南浦를中心으로龍岡郡各地에延하야多數히栽培된苹果는到今하야年産額百萬貫을算하야亦是全朝鮮中의最高位로海外外지名聲을振하고輸移出額이逐年增加하야晩秋와初冬成熟期이면中國側顧客이來集하야多數히貿去하엿든데今秋에도多少貿去는하엿스나冬期에入하야銀價의暴落影響과日本産苹果과遼東半島産에壓迫되야價格이初出廻時의一等檢査品四貫一箱四圓三十錢하던것이漸落하야二圓五十錢이라는約半價에至하야도賣買가不振하야生産品의半數는尙今滯在한狀態인데棉花와苹果의兩大生産物이右와如히不況에陷하엿슴으로多大한生産費를投한當業者의打擊은勿論이요一般農村에도影響을波及하야初冬에入하야一時的緩和를來하던農村經濟界도憔悴를極하야胡米飯糊口에도憂慮不堪할現狀에在하다더라(鎭南浦)

本報利川支局
懸賞投票結果
三等이二人뿐

本報利川支局에서는去十五日午前九時부터同十八日午後四時까지四日間利川農林産物品評會와利川郡外四郡水稻改良增收品評會에觀覽者數爻맛치기를懸賞投票한바그實數를該會主催者側에서正確히調査한結果男一萬五千四百六十八名女五千十一名總數爻가二萬四百七十九名이라는데讀者諸位의答案中五百名以內로틀린이두분이잇섯슴으로이兩人에게三等賞品即本報一個月分無料購讀券을送呈한다더라(利川)

◇受賞人氏名
二萬八名　利川郡邑內面官廳里　任再淳
二萬名　利川郡栢沙面玄方里　黃正鎬

地方人事消息

◎茂長公普生修旅 全北高敞郡茂長公普校四五學年生六十名은木浦共進會를參觀하라고金子寬一、金鳳燮兩氏의引率로去十八日午前八時에出發(高敞)

●感謝節祝賀歌劇盛況 慶北安東邑에서는法尙洞禮拜堂主催로去十七日下午六時에朴尙東牧師司會下에서感謝節祝賀歌劇會가同禮拜堂에서開催되엿는데滿場의盛況으로同十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安東)

麻衣太子 【下篇】
春園 作　丹谷 畵
【四十二】

포석뎡(鮑石亭)(三)

금군도독은 왕의압헤 물어업대여,

『그런생각을 마시옵소서。 폐하의적자중에 아즉도 충의지사 적지아니하오니 일시 화를피하시와 후일을보시옵소서』

하엿다。

『충의지사 누군고?』

하고 왕은 고개를숙엿다。

『내나마김충의 무리는모다일당백하는 충의지사라 반드시폐하를위하야 적군을 물리리라하나이다』

하고 어서이곳을떠나기를 재촉하엿다。

『내나마김충이아즉살앗는가』

하고 김성을 돌아보앗다。

『아즉죽이지안코 옥에가도아두엇나이다』

하엿다。

왕은길게 한숨을쉬고 왕후의손을잡아 이르키며,

『무슨면목으로 김충을보리』

하고금군도독이 인도하는 대로 허둥지둥 어두운산을 나려간다 일생에 발로흙을 밟아본일이 업는귀인들이라 걸음걸음 무릅흘꿀며,엄더지며,잡바지며,그리면서도 숨도크게쉬이지 못하고거오던덕을 나려섯슬때에 벌서앗가잇던 산마루턱이에는 회人불이보이고,

『왕아나서라』

하고 무엄하게웨치는소리가들렷다。

『우리는어듸로가는고?』

하고왕은영에 안즈며물엇다。

이때에 계림으로 향하는큰길에도벌서회人불이 보인다。

『이제는아직 남별궁으로피할수밧게업사옵니다』

하고금군도독은 손으로 남별궁잇는곳을 가르치엇다。

왕은다시 닐어나 금군도독에게손을달리어걸음을 옴겻다。

남별궁에는 문직히는 군사사오인이 회투人불가에 서잇다가 어두운그늘에 사람한떼가오는것을보고,

『거누고?』

하고소리를질럿다。

그러할때에금군도독이왕과왕후를인도하고 군사들압헤 다달아 회투人불빗에나서게되매군사들은 영문도모르고 창을들어왕을 맛고문을열엇다。왕은 창든군사의 낫츨대하기도 붓그러운드시고개를숙이고 문안으로 들어가버리고만다。 그뒤로김성이피투성이가되어끄어들어온다。

금군도독은다시문밧그로나와

『누가와서뭇든지 상감마마께옵서는 앗가환궁 하압시엇다고하여라』

하고는들어가버렷다。

군사들은영문도모르고눈이둥굴하야,

『웬일인가누가모반을하엿나』

『엇지면상감마마께옵서 보선발로저러케창황하신가』

『서울한은모도피투성이가 되엇서』

『저회人불이환궁하시는 회人불로만녀겻더니……』

마르텍에 잇던회人불은 무엇을찻는모양으로 여러길로 갈려서점점 가까워오고 계림人질에오든회人불도 사갈래로 갈려서가치 서울을향하고 달려들어간다。

왕은별궁에 들어가 어두운방에서 왕후를붓들고 울엇다。비빈들과궁녀들도 입을막고 울엇다。

화人불은 남별궁을에워싸다。진헌의군사에게 죽기를면한남녀의무리는 옷이찟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둘씩셋씩 남별궁눈압헤와서는문직키는군사더러,

『상감마마어듸로가겨시냐』

『앗가이압흘지나시와 환궁하시엇소』

하고문직히는 군사는 식힌대로대답하엿다。

『어이하리 어이하리』

하고벌벌 떨고사방을 돌아보며어두운속으로다리를끌고숨어버렷다。

社告

孔道駐在記者 車相鎬

右와如히記者를任命하얏삽기玆에社告함

東亞日報 安城支局

記者 慶元重

本支局에서業務를擴張키爲하야右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삽기玆에社告함

東亞日報 槐山支局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에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小林藤右衛門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李恒鍾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李東善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李升雨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芮宗錫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李仁用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寺尾猛三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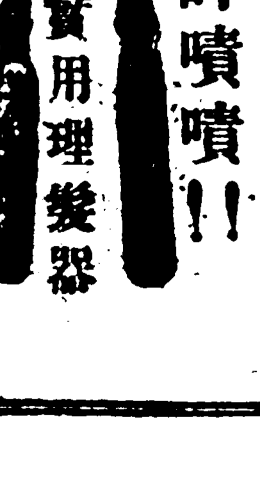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金思演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武上安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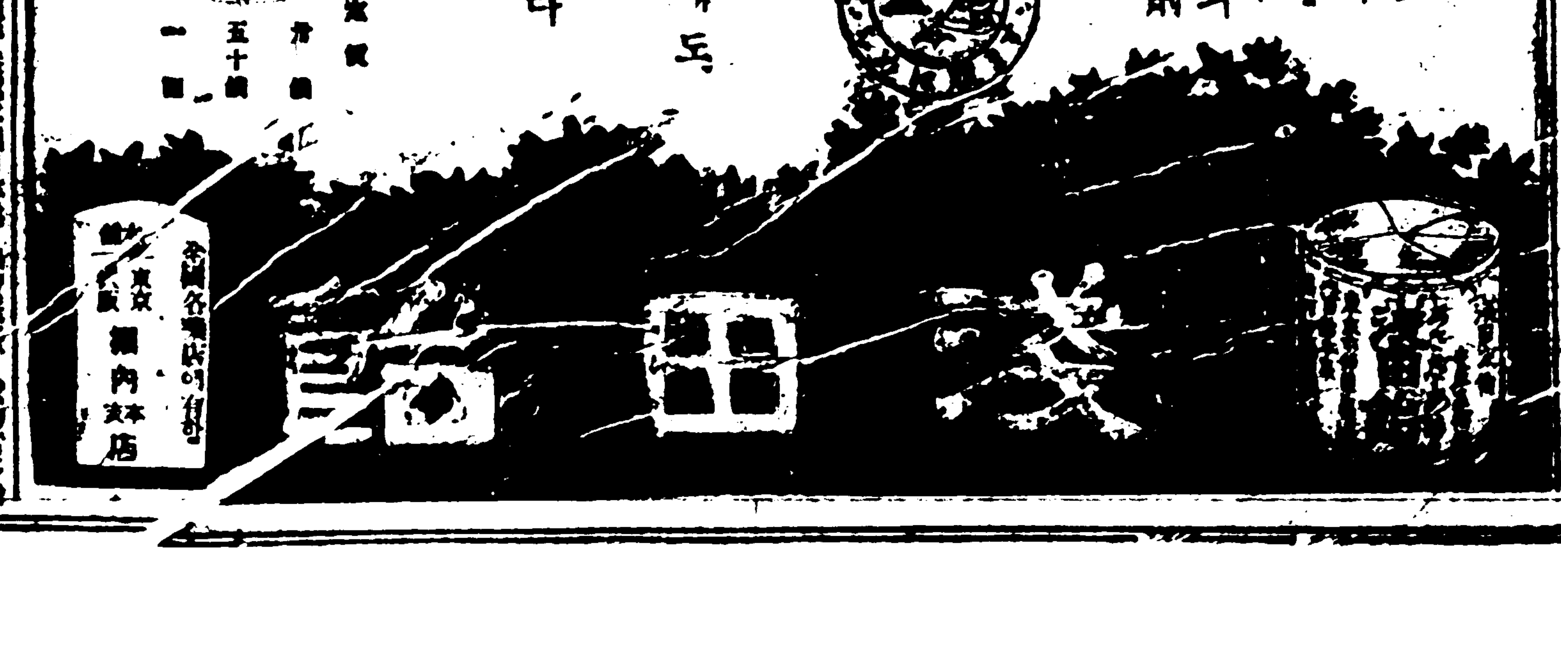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池田長次郞

今般京城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幸히當選의榮光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日
富井實太郞

資本金六百萬圓
(明治三十八年設立)
當銀行은預金、貸金、爲替等一般銀行業務를確實親切히取扱함
株式會社 漢城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光化門長七六〇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五番

新案品
使用輕便 價格低廉
好評嘖嘖!!


美裝國入 附屬品
日本理髮器具會社朝鮮總代理店
京城黃金町二丁目
長尾金寶堂



慢性腸胃加答兒의人은

胃腸의內壁에험과傷處를가진사람은傳染病에걸니기쉬움다
처음에는輕한胃腸病이라도慢性이되면胃腸內壁의粘膜을損하야加答兒即험이나傷處를生하야飮食할때마다刺戟하는故로압흐고食物의消化가조치못하며恒常가슴이답답하며또배가부르다。더욱히腸粘膜에加答兒가잇스면多量의粘液을分泌하야泄瀉가나서營養을阻害함으로身體衰하며元氣업고體重을顯著히減少함。▲腸의加答兒는實로두려운것으로營養吸收의不良으로肺尖에故障을起하야發熱로甚하게되면粘膜의表皮를剝脫하야血液과膿汁을漏洩하야족음飮酒나不消化物을먹으면곳泄瀉와疼痛을起하야오래끄로우며두려운胃癌과腸結核等의原因이된다。慢性胃腸病은胃病藥이나泄瀉藥等으로는決코낫는것이아니다。

반듯이アイフ(아이후)를服用하라

아이후는慢性胃腸病에가장適切한良藥으로그의主藥은內服後加答兒即創面에附着하야恰似히外創에藥을바르는것과가치炎症을鎭靜케하며疼痛을減하고粘液의分泌을制하는故로泄瀉를制止함。營養의吸收를佳良히함으로體重을顯著히增加하며元氣를回復하며食慾을增進하며、血液을조케하며其他只今까지오래不快하든慢性胃腸病을一掃하야目前에健康을恢復하야아모리重症이라도꼭滿足한効果를어들것이다

아이후를服用할病狀

◎食慾不進하며가슴이답답하고嘔氣가나며胃가압흐고배에塊를生하며
◎泄瀉又는軟便으로大便에粘液에도칙가튼것이석기며배가부르고압흐며방귀가자조나고배가부글부글끌으며
◎滋養物을먹어도살이붓지안코身體가더욱衰弱하며
◎營養不良으로元氣衰하며無力하야顏色이조치못하며
◎肺尖肋膜에故障을起하야熱과기침으로盜汗이나고숨차며
◎쪽음飮酒나不消化物을먹어도곳泄瀉가나고압흐며
◎重症으로大便에血液膿汁을混出하며胃癌又는腸結核腸潰瘍等의疑心잇는危險症에는반듯이아이후를服用하야根本的治療를하시압

아이후의主治効能

◎急性腸加答兒◎慢性腸加答兒◎大腸加答兒◎慢性下痢◎粘液性下痢◎神經性下痢◎腸結核◎潰瘍◎下痢性盲腸炎及腹膜炎◎急性胃加答兒◎慢性胃加答兒◎胃擴張◎胃아도니ー症◎食傷水瀉冷腹으로나는胃腸障害等其他胃腸諸病에服用하야泄瀉를막고腹內를고르게하야食慾을增進하며體重을增加하는効力이有함。

藥價 三日分七十五錢、七日分一円五十錢、十五日分三円、[illegible] [illegible]十日分[illegible]、廿一日分[illegible]円、卅三日分[illegible]円、七十日分二十円

注文할때는病狀을記하야郵便爲替又는振替大阪三四五番으로本舖에送金하시면即時送[illegible]함

發賣本舖 大阪市東區[illegible]上本町[illegible] 電話東長五六四·振替大阪三四五 順和公司

發賣所 東京市四谷區[illegible] 大連市山縣通一丁目 [illegible]大連三七六五 順和公司

各地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新井大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木村眞三郎
平壤大和町 森田草樂堂
京城本町一丁目 山岸天祐堂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和平堂藥房
京城太平通一丁目 濟生堂藥房
京城鍾路一丁目 模範賣藥社
京城鍾路四丁目 博愛堂藥房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共愛堂藥房

大田本町 三枝藥店
大邱府元町 町田回春堂
大邱東城町 鈴木藥局
群山全州通 神林藥局
群山榮町 沈學允
馬山府都町 岩見屋藥店
釜山辨天町 大黑南海堂
釜山辨天町 藤田大藥房
新義州本町二 下川文助

全州大正町 上田藥局
咸南端川 丸子藥房
開城大和町 李文淳
開城南門通 普春堂藥房
水原城外 濟生堂藥房
咸南利原 元信堂藥房
新義州大通 大川藥房
安東縣市場通 井上誠昌堂